

## SSangyong

### 싱가포르 건설대상 최우수상 수상

쌍용건설이 시공한 창이 라이즈 아파트 (Changi Rise Condominium)가 '싱가포르 건설대상(BCA Awards)주거건물 부문' 설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창이 라이즈 아파트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턴키(Turn-key)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의 위상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. 쌍용건설은 지난 80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1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설계부문을 수상하기는 2001년 캐피탈타워(Capital Tower) 이래 두번째이다. **S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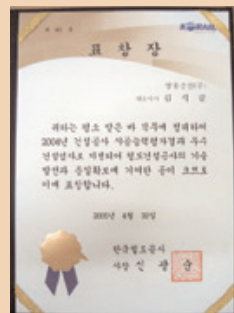
###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우수시공업체 선정

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이 4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2004년 우수시공업체 시상식에 참석해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. 이번 표창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발주한 공사 중 당해 년도 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·안전관리,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와 현대건설,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선정됐다. 쌍용건설은 지난 해 12월 대구-포항 4공구(현장소장·김태균 차장)와 동해-주문진 3공구(현장소장·차형대 부장) 및 6공구(현장소장·유명근 상무)를 준공했으며, 이들 공사에 대한 우수 시공능력을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. **S**



### 한국철도공사 우수건설업자 선정

쌍용건설은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전-사상 복선화 철도공사와 부전역사 신축공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04년도 우수건설업자 표창을 받았다. 이 표창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국의 현장 중 당해 연도 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·안전·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, 토목부문의 부전-사상 복선화 철도공사 현장과 건축부문의 부전역사 신축공사 현장이 각각 선정됐다. 이 현장들은 경부고속철도의 시 종착역인 부산역에 집중되는 여객 열차를 부전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부전-사상 구간(7.3km)의 복선화 노반공사와 부전역 확장공사를 수행했으며, 2004년 3월 개최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. **S**



###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

쌍용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는 인천북항 일반부두(3선석)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식이 7월 7일 해양수산부 대강당에서 열렸다.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6개 출자사 대표가 참석했다. 총 사업비 1,139원 규모의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2만 톤급 선박 3선 석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307억원의 국고 보조금(27%)과 832억원의 민간사업자금(73%)이 투입된다. 이 사업에는 주간사인 쌍용건설(38%)과 반도(27%), 금광기업(5%) 등 3개 건설사와 우련통운(10%), 영진공사(10%), 선광(10%) 등 3개 운영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2005년 10월 착공, 2009년 3월 완공한 후 50년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. **S**



### 쌍용컨소시엄, 부산 범천동 도심 재개발 수주

쌍용건설과 벽산건설 컨소시엄이 총 1,000가구 규모의 부산 범천 1-1구역 도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. 부산 범천1-1구역 재개발조합(조합장·강호수)은 21일 조합원 418명이 참석한 조합총회에서 94.45% 찬성(399명)이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쌍용건설과 벽산건설 컨소시엄(지분 55:45)을 시공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. 이로써 부산 진구 범천동 850번지 일대 6,230평은 ▲36평형 552가구 ▲47평형 292가구 ▲55평형 156가구 등 총 1,000가구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45층 3개 동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된다. 주민 이주는 2006년 5월부터이며, 2007년 3월 착공해 2010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. **S**



### 경희궁의 아침, 주거건축관련 연이어 수상

'경희궁의 아침'이 7월 1일 '2005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'에서 오피스텔 부문 대상을, 7월 11일 '살기좋은 아파트'에서는 주상복합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. 서울 사대문 한복판에 내수동에 위치한 총 1,391가구의 '경희궁의 아침'은 용맥(龍脈)을 형성하는 하늘이 내린 터라는 입지를 내세운 '풍수 지리 마케팅'으로 2001년 5월 분양당시 많은 관심을 끌며 한 달여 만에 100% 분양을 달성한 바 있다. '경희궁의 아침'은 단지 주변으로 경복궁, 덕수궁, 창덕궁, 창경궁, 경희궁 등 5개 궁궐의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3,500여 평의 풍부한 조경녹지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산, 인왕산과도 인접해 있는 등 도심지역에 위치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단지 설계가 높이 평가됐다. **S**

